

제시문 [1]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 이후 엄청난 속도로 발전한 기술(技術, technology)은 우리 삶의 형태와 방식을 상당히 바꾸어 놓았고, 기술 사회(技術 社會, technological society)는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낙관적인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기 시작했다. 인도의 사상적, 정치적 지도자인 간디(Mohandas Karamchand Gandhi, 1869~1948)는 영국이 이식한 대량생산 기술(mass production technology)들이 인도의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량생산 기술의 특혜를 받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나누면서 빈곤을 더욱 고착화(固着化)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 등의 철학자들은 인간 자신이 거대한 기술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써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인간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급성장한 로봇(robot), 스마트폰(smart phone),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등의 기술들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 침투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노동과 생산 그리고 인간의 관계에 대한 기본 개념이 바뀌면서 인간소외(人間疎外)의 위기감(危機感)을 느끼기 시작했다.

제시문 [2]

성주와 주현이는 담임선생님께서 주관(主管)하시는 학급모임에 몇 명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참여(參與)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30분에 모여서 정해진 주제(主題, topic)에 대하여 한 명이 발표(發表)한 후 함께 토론(討論, discussion)하는 형식입니다. 아침 이른 시각이고 한 달에 한번 꼴로 주제 발표 준비도 해야 해서 다소 부담(負擔)이 되기는 하지만, 다양한 분야(分野)를 공부하는 재미와 보람이 있어서 지난 학기부터 자발적(自發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까지 총 20회의 모임 중에서 성주와 주현이 둘 다 5회 지각(遲刻)을 하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지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시문 [3]

예시문 각각이 고정관념(固定觀念, stereotype)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생각해보고 면접관의 질문에 답하시오.

1. 미국은 폭력(暴力)적인 나라야. 모든 사람이 총을 가지고 다니잖아.
2. 나는 그 친구가 왜 시험을 망쳤는지 모르겠어. 동양인은 전부 수학(數學)을 잘하는데 말이야.
3. 독일 사람들이 재활용에 신경을 쓰는 경향(傾向)이 있는 것을 봐서는 환경문제(環境問題)에 관심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
4. 이슬람 사람들은 그냥 싫어. IS나 알 카에다 같이 테러(terror)를 저지르고 다니잖아.
5. 일본 직장에서 대개 여자가 차(茶, tea)를 내오는 것을 보면 남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겠다 싶어.

제시문 [4]

“매해 서울의 매미 소리는 점점 더 시끄러워지는 것 같다.” 매년 여름, 장마가 끝나고 찜통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듣는 말이다. 매미 울음소리는 수컷이 낸다. 짝짓기를 위해 암매미를 부르는 소리로 2015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소음도(騒音度)를 측정한 결과 평균 80데시벨(decibel/dB)로 조사(調査)되었다. 80데시벨(decibel/dB)은 청소기나 주행(走行) 중인 자동차들이 내는 평균 소음(騒音)과 맞먹는 수준이다.

혹자는 도시의 소음이 커지면서 암컷을 찾기 위한 수컷 매미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다는 주장(主張)을 한다.

- ❖ **안내** 아래 두 개의 글을 읽고, 준비된 원고지에 각 제시문의 주제를 각각 한 문장으로 작성하세요.
(준비시간 10분을 별도로 제공)

제시문 [5]

수년 전 학년 초였다. 첫 자치활동(自治活動)이 있는 날이었다. 반장을 교무실로 불러 학급회의(學級會議)를 잘 이끌어 보라고 주문했다. 학급 규칙(規則) 같은 것을 정해서 우리만의 제대로 된 학급 자치(自治)를 이뤄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였다. 모두가 흔쾌히 응했다.

학생들은 회의를 제법 진지하게 진행했다. 나는 회의 중간에 교무실로 돌아왔다. 회의가 끝나고 반장이 결과(結果)를 알려주었다. 회의록을 살펴보니 벌금제(罰金制)가 중심이었다. 무단 지각(遲刻) 벌금 얼마, 야간 자율학습 무단 결과(缺課) 벌금 얼마 등의 식이었다.

벌금제(罰金制)라 학생들에게 제법 효과가 있을 것 같았다. 잘 하면 많은 담임교사들의 꿈이기도 한 무지각(無遲刻)·무조퇴(無早退)·무결석(無缺席)의 한 해를 만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중략]

벌금제(罰金制) 운영의 결과(結果)는 기대와는 전혀 판판으로 나왔다. 지각(遲刻)하는 학생들이 줄지 않았고, 야간 자율학습에 무단으로 빠지는 학생들도 늘어났다. 물론 다른 반과 비교하면 많은 편이 아니었지만 벌금제(罰金制)를 운영하는 학급이라고 말하기가 무색할 정도였다.

미나(가명)는 그 해의 잊지 못할 학생이다. 전 학년 담임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미나는 평소에 수시로 지각(遲刻)하고 결석(缺席)하는 학생이었다. 학년 초에 미나는 지각(遲刻)과 결석(缺席)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묵은 습관 때문이었을까. 미나는 지각(遲刻)하는 날이 잦아졌다. 이삼일을 계속해서 학교에 늦게 올 때도 있었다.

"미나야, 요새 무슨 일 있는 거야?" 그날도 나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에 미나에게 물었다.

"아니요. 벌금 내면 되잖아요."

제시문 [6]

수 년 전 문을 연 서울 OO동의 ‘베이비박스’에 대한 찬반논란이 해를 거듭할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자신의 집 담벼락에 ‘베이비박스’를 설치한 이OO 목사는 ‘베이비박스’를 개설한 사연을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알렸다. 어느 추운 날 한 밤 중에 익명의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대문 앞에 아기바구니를 두고 갔다는 것이었다. 황급히 나간 그는 아기바구니가 놓인 것을 발견했고, 바로 그 순간 고양이가 아기바구니 옆을 휩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버려지는 아이를 추위와 고양이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베이비박스’를 설치했다고 한다.

‘베이비박스’는 버려지는 아기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는 선의와 사랑으로부터 우려나온 결과물임에 틀림이 없다. 더 나아가 이OO 목사는, 서울 변두리의 한 유적한 골목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베이비박스’가 전국적인 지명도를 획득하면서 밀려들기 시작한 어린 생명들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 정성을 다해 돌보고 있다. 한밤중 벨이 울리면 잠옷 바람으로 달려 내려가 아이를 안아내는 이OO 목사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때로는 미숙아, 탯줄도 갈무리되지 않은 아기, 장애아동도 있다.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일 그 자체의 선함에 대해서 시시비비하는 일은 옳지 않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쪽에서는 이 일은 긴급한 일일 뿐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니 전국적으로 10개소 이상 확산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다른 한 쪽에서는 ‘베이비박스’의 출현은 우리사회의 아동양육시스템이 병들고 고장 났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주는 일일뿐 아니라, ‘베이비박스’ 그 자체가 아동유기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우리사회의 아동양육시스템을 전방위적으로 재구성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둘 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교회 측에서는 아동들이 ‘베이비박스’에 들어오는 즉시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고 OO구청에서는 ‘베이비박스’로 공무원을 보내 이 아동들을 거기에서 데리고 나와 서울에 산재한 아동보육원으로 재배치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베이비박스’의 이OO 목사가 이 모든 아이들을 돌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베이비박스’가 이 아동들의 양육에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박스’에 대한 언론보도는 ‘베이비박스’의 존재를 전 세계적인 수준의 아동구호체계로 각인시켰다. 미국에서는 이 ‘베이비박스’를 후원하는 재단이 설립되었고, ‘베이비박스’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이 아이들은 죽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되었다. 하지만 ‘베이비박스’가 세계적 수준의 인지도 상승과 후원금의 쇄도라고 하는 엄청난 선의와 사랑의 혜택을 누리는 동안, ‘베이비박스’에 유기되었던 아동들은 그 아동의 친모나 가족의 기대와는 달리,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수돗물이 없어 지하수로 우유를 타 먹이는 열악한 아동보육시설들로 보내지고 있다.